

# 재즈와 클래식음악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고찰

오한승

동아방송예술대학 영상음악계열  
ohs@dima.ac.kr

## The Study on Musical Influences between Jazz and Classical Music

Han-Seung Oh

Dept of Applied Music, Dong-A Institute of Media and Arts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이후 클래식음악에 영향을 미친 재즈음악과, 클래식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재즈라는 음악을 음악적 표현 도구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즈는 현대 클래식음악에 즉흥성, 창의성, 독창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두 음악 장르의 상호 영향을 살피는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1. 서론

고대에서 현대 사회에 이르는 동안 다른 모든 예술 분야처럼 음악도 새로운 내용과 표현 방법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시대적 감각이나 요구에 의한 새로운 기법과 양식이 생겨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 미학적 사고 또한 많이 바뀌어져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음악계는 기존의 전통에서 탈피한 다양한 경향이나 양식을 주장했고, 표현주의의 음악, 신고전주의 음악, 실용주의 음악 그리고 12음 기법 등 몇 가지 경향들이 음악가의 양식 속에 흡수되어 갔다. 종래의 조성, 리듬, 형식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독창적인 것을 만들고자 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논리적이고, 정확한 유럽의 음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음악으로서의 재즈가 음악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재즈는 미국 흑인들의 음악 양식인 래그타임과 블루스의 초기 형태에서 미국 백인들의 브라스 밴드 전통과 결합하면서 몇 군데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1916년에 시카고에서, 1917년에는 뉴욕에서 재즈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흥행이나 순회연주로 인하여 재즈가 유럽에까지 소개됨으로써 음악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재즈는 거쉰, 코플랜드 등을 비롯한 미국작곡가들의 곡뿐만 아니라 드뷔시, 라벨, 미요, 스트라빈스키 등의 유럽 작곡가들의 곡속에서도 재즈의 리듬, 선율, 화성,

즉흥성, 음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렇듯 그 시대를 반영하며 대중음악으로서의 세계적인 관심과 인기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관심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즈의 독자적인 가치 외에도, 이러한 음악의 특징이 클래식에서도 사용되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호교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재즈와 클래식음악의 상호교류

20세기 초, 음악의 기존 전통은 드뷔시의 비기능 화성로 접어들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새롭고 젊은 음악가들은 기존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들에게서 새로운 음악재료는 커다란 관심사였다.

어떤 일부 작곡가들에게 있어 정통적인 어법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 하나는 표현의 분야가 너무 한정되어 있는 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그것의 표현이 너무 틀에 박힌듯한 탓인지도 모른다. 분명 일종의 공공적인 언어이므로 그 속에 자기다운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작곡가들은 새로운 어법을 펼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연구의 눈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양 음악이나 재즈, 고전 등으로부터 갖가지 창조적 자극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이때에 그 하나로 재즈가 일반적으로 서양 음악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재즈가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데에는 1차대전이 끝날 즈음에 미국백인들이 새로운 생활양식을 발전 되면서 극장 브로드웨이, 댄스홀 톨 팬 엘리 그리고 재즈밴드가 발흥하고 전문적인 연애산업속에서 견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재즈가 뉴올리언즈 밖으로 알려지게 된 때인 1917년에 미국 언론은 이를 쓰기 시작했고 1920년대 동안 수많은 신문과 잡지에 기사로 등장했다. 또한 레코드회사와 라디오, 유선방송사 등으로 인해 재즈는 더욱 대중화 되고 그것이 만들어낸 문화는 1910년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미국가정에 일반화 되었다.

1920년대 나타났던 재즈의 열광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작곡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그들은 전통적 예술음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재즈의 선율 화성 리듬에 흥미를 갖고 이러한 재즈의 기법을 그들의 작품속에 적용시켰다.

미국 니그로 사이에서 일어난 음악이 유럽사람들의 특별한 관심거리가 되었던 것에는 몇몇 이유가 있었다. 논리적이고 정확한 유럽의 음악이 몇세기 동안 지속되면서 유럽인에게 비논리적이고 비규정적인 아프리카계의 음악은 충분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얼핏 보면 단지 당김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래그드(Ragged)’ 리듬에 관한 아이디어는 많은 순수음악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당시 작곡가들의 공통된 관심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정량적인 맥동을 세련된 방법으로 탈피할 것인가 였다. 래그타임의 고르지 않은 리듬은 거칠지만 신선한 생명력과 매력이 있어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클래식 작곡가는 스트라빈스키였다.

그는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을 위해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래그 뮤직’(1919)과 ‘11개의 악기를 위한 래그타임’(1918)을 작곡했다. 또한 그의 ‘병사의 이야기’(1918)에도 래그타임을 이디엄이 용해되어 왔다.

20세기 초 여러 클래식 작곡가들은 재즈 어법을 20세기 음악이 요구하는 ‘새로움’을 제공하는 재료로 인식했다. 드뷔시의 ‘콜리워 케이크 워크’,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에릭 사티의 발레음악 ‘파라드’, 에른스트 크셔넥의 오페라 ‘조니는 연주한다’, 쿠르트 바일의 오페라 ‘서 폰짜리 오페라’ 등이 그 예이다. 이 작품들은 이른바 ‘신고전주의’ 음악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들 작곡가들은 재즈의 기본정신인 연주의 즉

흥성을 살리지 못한 대신 재즈의 화성적 색채나 재즈연주의 부산물인 악기의 새로운 주법과 음색 등의 요소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즈의 리듬, 선율, 음계, 음색 등의 독특한 요소들을 자신들의 작품에 도입하여 폭넓은 음악 세계를 창출해 나갔다.

전쟁 후 음악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재즈댄스 밴드의 활기차고 자유로운 리듬은 전쟁에 지쳐있는 세계에서의 새로운 자극과 즐거움에 대한 열망이 단적으로 나타난 예라고도 볼 수 있다.

구속받지 않는 그룹 즉흥연주의 대위법은 그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짜임새를 제시해 주었고 블루스 음악가들의 미세하게 조를 벗어난 억양은 좀 더 ‘정확한’ 음에 익숙해진 귀들에게 흥미를 자아냈다.

## 2.1 재즈가 클래식 음악에 미친 영향

재즈는 미국에서 발생한 음악이므로, 미국 작곡가들에 의해 자주 클래식 음악 작품에 응용되었는데, 유럽의 작곡가들 또한 새로운 음악적 어법으로 재즈를 자신들의 음악에 결부시켰다. 이렇듯 재즈가 여러 나라 작곡가들의 음악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까닭은 재즈가 가진 대중음악으로서의 가치와 대중음악과 고전음악의 간격을 없애는데 재즈가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드뷔시(Claude Debussy)는 인상과 회화의 기법에 맞는 음악의 표현을 창안하였다. 그림에서 빛을 중요시 하듯 음악에서 감각을 중요시 하였다. 새로운 감각을 위해 새로운 음의 조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대담한 화성을 사용했다. 인상주의란 외계로부터 받은 자연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해낸 예술이다. 드뷔시의 음악은 표현의 예술이 아니라 인상의 예술이다. 재즈는 즉흥연주에서의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음악장르이기 때문에 인상주의 음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권영란, 2004)

드뷔시는 자신의 음악에 또 다른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재즈의 요소들을 사용했다.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는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래그타임을 자신의 음악에 도입해서 작품들을 썼는데, 이는 그의 작품세계 중 신고전주의에 해당된다. 스트라빈스키가 래그타임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는 미국 연주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 에르네스트 앙세르메(Ernest Anseremet)로부터 래그타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였다. 리듬의 가능성들에 관심이 많았던 스트라빈스키는 특히 양식이나 악기의 사

용법이 타악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레그타임에 매료되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은 스스로 ‘재즈는 미국의 민속음악’이라고 말했듯 자신의 작품에 재즈를 적극 도입했다. 거슈윈이 작곡한 뮤지컬의 넘버들 가운데 여전히 재즈 연주자들에 의해 널리 연주되는 스탠더드들은 무수히 많다. 작곡가로서뿐 아니라 재즈 피아노의 거장으로 유명했던 거슈윈이 재즈를 도입해 작곡한 대표적인 작품들에는 ‘Rhapsody in Blue’, ‘Piano Concerto F’, ‘An American in Paris’ 등이 있다. 이 중 ‘Rhapsody in Blue’는 거슈윈이 심포닉 재즈라는 장르를 개척했던 빅 밴드의 리더 폴 화이트맨의 위촉으로 만든 곡으로, 원래는 피아노곡으로 작곡했으며 관현악 부분은 페르드 그로페(Ferde Grofe)에게 편곡을 맡겼다. 이 곡은 랩소디인 만큼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빈번하게 전조가 행해진다.

## 2.2 클래식 음악이 재즈에 미친 영향

재즈는 흑인의 음악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구의 클래식 음악은 재즈의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장르 중 하나다. 조성 체계, 기보법, 음정 등 뿐 아니라 사용하는 악기들도 모두 서구의 것이다. 일부 백인 재즈 평론가들은 저서에서 흑인 재즈 연주자들의 역할을 폄하하기도 했는데, 재즈의 형성에 있어 백인들의 비중이 적게 다루어지는 것 역시 인종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후에도 클래식 음악은 재즈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큰 영향을 주었다. 비밥의 창시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찰리 파커도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연습했고, 마일즈 데이비스는 음반 Kind Blue에서 그레고리오 성가 선법을 도입했다. 마일즈 데이비스 이전에 조지 러셀은 이미 모드와 관련한 저서를 낸 바 있고, 데이비스 역시 이 저서에 영향을 받았다. 존 콜트레인은 니콜라스 슬로넨스키의 저서를 보며 연습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재즈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론을 정립했다.

조지러셀(George Russell)은 원래 비밥 드러머였으나, 작곡가 겸 이론가로 변신해 재즈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러셀은 드럼으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지만, 중요한 음악 교육을 받은 곳은 병원이었다. 해병대에 지원하려다 결핵 판정을 받고 6개월 간 병원에 있을 때, 함께 있던 환자에게

클래식 화성학의 기초를 배웠다. 이후 드러머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뉴욕으로 이주해 한 연주자들의 모임에 참가하게 된다. 이 모임에서 러셀은 마일즈 데이비스 등을 만나 음악의 이론에 대한 식견과 이상을 높였고 클래식의 교회 선법을 재즈에 적용시켜 코드와 스케일의 개념을 하나로 엮는 최초의 이론서<sup>1)</sup>를 출간했다. 마일즈 데이비스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아 Kind of Blue에서 최초로 모달 재즈(modal Jazz)를 시연한 바 있다.

러셀은 저서에서 즉흥연주와 작곡을 하는 데 있어 반음계 사용의 시스템을 구축 했다. 저서는 관습적인 조성의 사용을 피하고 근음과 중4도(tritone) 관계인 음을 포함하고 있으면 관습적인 조성 대신 리디안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리디안 모드는 메이저 스케일과 #4도를 제외하고는 구성음이 같다. 리디안 모드로 진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C 메이저 스케일 대신 F를 근음으로 하는 리디안 모드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이론이었다. 리 코니츠(Lee Konitz) 같은 연주자들은 러셀의 이론이 즉흥연주에 많은 자유로움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 비록 60년대 프리 재즈 연주자들이 스케일과 코드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러셀의 이론은 이 가능성을 열어준 단초였던 것이다.

## 2.3 즉흥연주 및 음색의 문제

초기 Jazz 음악가들은 유럽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지만 악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곡을 외우던지, 귀로 듣고 연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테마에 장식을 덧붙여 표현하는데 관심을 나타냄으로 Jazz의 중요한 특징인 즉흥연주가 시작되었다. Jazz의 즉흥연주는 유럽음악과 같이 화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Jazz연주자들은 주어진 화성구조 위에서 즉흥연주를 하거나 주어진 선율을 장식한다. 여기서 즉흥연주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즉흥연주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유럽 음악가와 달리 악보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흑인 고유의 문화적 요인 때문에 악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편곡을 하며 그것을 외워두어 즉흥연주에 대비 하였다. 즉, 즉흥연주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1) George Russell(1953), Lydian Chromatic Concept of Tonal Organization (Massachusetts ; Concept Publishing).

리듬과 함께 음색은 Classic 음악 작곡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Jazz는 악기 편성에서 오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이러한 특성적인 음빛깔은 현악기(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없는데서 오며 피아노, 베이스, 바스, 드럼 등의 리듬악기와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등의 선율악기로 나뉘어져 리듬부의 강한 진동에 맞춰 선율악기는 독립적으로 리듬과 선율과의 대위법을 짰다. 현악기를 포함하지 않는 소규모의 실내악의 결합이 이루어내는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음이 자극이 되어 작곡자들은 종래의 짜임에서 벗어나 음빛깔의 실험을 시작하였다.

Jazz악기 편성이 성공한 것은 색소폰의 사용과 금관악기의 약음기의 사용이다. 색소폰은 두드러진 선율로서 사람의 목소리를 표현했고 다른 악기들한테 융합시키는데 공헌했다. 약음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악기들 특히 색소폰과 친밀하게 융합되어 무한한 색채와 리듬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악기편성만이 Jazz의 기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악기들의 새로운 기법으로 즉 흑인들의 기법으로 연주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특정한 전통적인 관점 하에서 고집스럽게 보아왔던 특정 악기들, 트롬본은 장엄하고 화려하게, 트럼펫은 영웅적으로, 오보에는 목가적으로, 북은 군대적으로, 바이올린은 서정적, 피아노는 낭만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Glissando를 연주하는 트롬본, 트럼펫을 신경질적으로, 피아노는 타악기로만 다룬다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일을 했다.

### 3. 결론

재즈는 20세기 초에 등장해 100년의 역사 동안 시대별 변천사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대표적인 아프리카-아메리칸 음악이다. 1950, 60년대 이후 재즈가 대중성보다는 음악성을 중시하는 음악으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에 따른 연구 활동도 활발해졌지만, 국내에서는 재즈가 소수의 클래식 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등 특정한 주제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재즈의 영역을 인정하고 연구하는 현재 세계의 추세에 발을 맞춰 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클래식 음악과 재즈의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Jazz는 미국에서 흑인과 유럽음악의 만남으로부터 탄생한 예술이며 대륙의 음악, 세계의 음악이다. Jazz는 비록 아프리카 토속음악에서 싹텄지만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백인들의 음악문화를 바탕으

로 성장, 발전하였다. 이같이 Jazz는 진보된 민속음악이 아니라 복잡하고 세련된 방식과 체계가 있는 음악장르가 되었다. 또한 오락의 음악이 아닌 공연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 높은 수준에 이르는 순수예술이 되었다.

또한, Jazz는 유럽 음악과 만남으로써 그 자체가 예술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오늘날에는 Rock & roll, rhythm & blues, new rock 등으로 파생되어 많은 연주자들이나 가수들에게 연주되는 세계인의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Jazz가 19세기 이후의 전통음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원래의 Jazz와는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Jazz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즉흥연주나 스윙 등의 기법을 사용한 것에 비해 클래식 작곡가들의 작품은 수많은 음악적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 수단으로 Jazz 기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Jazz의 영향으로 19세기 이후 현대의 순수음악은 즉흥성, 창조성, 독창성으로 승화됨으로써 한층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권영란, “C. Debussy 작곡 ‘Deux Arabesques’의 Jazz 和聲的 해석 : 첫 번째 Arabesque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 권오경, “클래식 음악이 재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 김금희, “20세기 음악에 나타난 재즈기법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2000.
- [4] Bill Crow, “Jazz Anecdo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5] Brindle Reginald Smith, “The New Music the Anant-Garde Since 1945”, p.225, 1997.
- [6] John Fordham, “Jazz”, A Dorling Kindersley Book, pp14-17, 1993.
- [7] Roger, T. Dean, “New Structures in Jazz and Improvised Music Since 1960”, Open University Press, pp170-180, 1992